

사원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우수 보험회사로 인정! 국내신용평가 등급 상향 조정

지난 11월 27일, 메리츠화재는 국내 제일의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1년에는 AA등급, 올해 7월에도 AA등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장기 인보험 중심의 성장전략, 타사 대비 우수한 손해율 관리, 양호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을 높이 평가받아 한 단계 높은 AA+등급을 획득했다.

이뿐 아니라 A.M.Best로부터 6년 연속 A-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내신용평가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나이스 신용평가 주식회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나이스 신용평가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보험업계에서 공고한 시장지위 확보, 보장성보험 중심의 원수보험료 성장세 지속, 장기보험 위주의 안정적 보험 포트폴리오 보유, 우수한 보험영업수익성에 기반한 수익창출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받아 신용평가등급을 상향 조정받았다.

메리츠의 아름다운 동행 한석규와 함께 하는 60번째 걱정해결



메리츠화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윤 덕재 인사총무본부장, 메리츠화재 광고모델인 한석규씨 외 임직원 10여명 등의 걱정해결단과 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60번째 걱정해결단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계층 13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수리를 도왔다. 이날 한석규 씨는 홀로 사는 팔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내려앉은 천장을 수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조금도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어르신이 겨울을 포근하게 나갈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화손해보험

혁신성과 대회 보고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11월 22~23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화 인재경영원에서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성과 보고대회'는 지난 2013년 5월 경영혁신 전진대회 이후 '혁신활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슬로건과 △시장지향적(Market Driven) 경영 추구 △사업가형 책임경영 체계 확립 △Simple, Speedy, Smart한 실행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40개 혁신과제의 성과 평가와 포상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핵심전략과제들로는 '고객관점에서의 프로세스 혁신', '고객상담센터의 서비스 레벨 개선', '보유고객 계약관리 효율화' 등 40개의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되어 왔으며 고객지향적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개선방향으로 혁신과제들에 대한 활동이 이어져 왔다.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화손해보험은 12월 11일 우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에서 독거노인 유공단체로 선정돼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

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 있는 보상센터직원 400여명이 독거노인 200여명과 결연하여 규칙적으로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하늘소풍노트' 라는 방문 노트를 개발하여 전기안전교육, 겨울철 건강관리, 웰다잉 교육 등 매월 테마를 가지고 봉사자와 독거노인이 만나는 등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에서 개발한 하늘소풍노트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공식노트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시행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은 12월 20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익산시청에서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 이한수 익산시장,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송헌승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배려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약'은 익산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것으로,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매월 익산시 거주 사회 배려층의 청소년들을 롯데월드로 초대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2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및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료직원 돕기 모금 및 헌혈, 연말연시 소외계층 돕기 등의 사회적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희망포인트 기부금 1억원 전달



롯데손해보험은 12월 10일 서울 소재 COEX에서 '롯데손해보험 희망포인트' 적립금 1억원을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롯데손해보험 이봉철 대표이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오종남 사무총장, 롯데디자인츠 최하진 대표이사과 롯데디자인츠 소속 강민호 선수, 손아섭 선수, 조성환 선수가 참여했다.

'롯데손해보험 희망포인트'는 롯데디자인츠 유니세프데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희망포인트를 적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아동 구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행사로, 롯데손보는 2011년 처음으로 유니세프에 기금을 전달한 이후 3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과 유니세프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여행 및 문화체험 지원, 자녀보험의 원수보험료 1%와 자동차 보험 체결 시 건당 100원의 기금 적립 및 기부, UNICEF자선콘서트 후원 등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MG손해보험

환경부와 '그린카드' 업무협약 체결



MG손해보험은 11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국민 친환경소

비생활 촉진을 위해 2011년 도입한 그린카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각종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사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에코머니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대기환경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참여 등 친환경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MG손해보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3만점(km당 10원)까지 BC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계약자가 3,000km 초과 감축시 MG손보가 초과 km당 10원(최대 7만원)을 출연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부한다.

각종 친환경생활을 통해 적립한 그린카드 에코머니는 자동차 보험료 차감, 친환경 기부, 이동통신요금 납부, 대중교통 결제, 현금 캐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MG손해보험을 비롯한 총 22개의 제조·유통·서비스 기업이 함께했다.

사랑탄·나누미(米)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MG손해보험은 12월 6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김상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 환경취약가구 13세대에 연탄 3,250

장과 쌀을 배달하는 '사랑탄·나누미(米) 전달행사'를 전개했다.

김상성 대표이사는 "오늘 우리가 흘린 구슬땀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땀"이라며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탄과 나누미가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중증장애기관 및 보육시설 방문 봉사,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원회사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II” 출시



흥국화재는 질병 또는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II’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종전 ‘파워라이프 통합보

험 I’에 비해 만기연령, 갱신기간, 질병담보 등이 더욱 확대되는 등 흥국화재 주력 상품들의 장점을 한 데 모아 업그레이드했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질병 또는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장 보험료가 납입면제 돼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종합보험 상품의 경우 50%가 아닌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각종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기간도 3년에서 15년으로 확대돼 3년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발병율이 높은 간질환, 뇌졸중, 노인성 질환, 남성특징비뇨기계 질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의 담보가 30종 추가돼 총 171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연펀드 캠페인 실시

모두의 금연 흥국인의 금연펀드 캠페인!

금연 성공 확률이 높은 금연펀드에 투자하세요!

이제 사무총의 의지와 도전의지를 확인하시고, 투자금을 신청해주세요.
 (1만원 지원 가능, 최대 300까지 투자가능(투자금액 1000만원까지)
 *투자자로 참여하신 모든 사무 차원에서 전담으로 지원합니다.

총 후원인원: 5명

김대현 대표이사 1000만원 후원	김준호 차장 1000만원 후원	김영호 부장 1000만원 후원
김민서 부장 1000만원 후원	김도훈 과장 1000만원 후원	김영재 과장 1000만원 후원

흥국화재는 흡연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금연펀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새해를 맞아 흡연 임직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6개월 동안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여 금연 성공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들은 1월부터 6개월간 금연에 도전하며, 니코틴 검사(3개월, 6개월차)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평가를 받는다. 금연에 최종 성공한 임직원에게는 3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또한 비흡연 임직원들은 성공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는 금연 도전자에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투자하여, 도전자의 금연 성공여부에 따라 배당 수익을 받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어,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운영된다. 지난 12월 금연 신청을 받은 결과, 38명이 금연에 도전한다.



장애아동시설에 ‘500원의 희망’ 선물



삼성화재는 12월 24일 '500원의 희망선물' 185호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시설인 인천 '성동원'을 선정하고, 청각장애아동들과 함께 입주식 및 송년 행사를 가졌다.

성동원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9월에 개원해 오랜 역사를 지닌 청각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는 중복장애 아동 등을 포함, 21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00원의 희망선물' 캠페인에서 성동원을 이달의 대상으로 선정, 이들을 위해 5천여 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우선 시설 내부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빔 프로젝트와 무대를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만들었다. 기존의 자원봉사실도 언어치료실로 리모델링해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를 위한 전용 치료공간으로 바꾸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춰 열린 이날 입주식 행사에는 삼성화재 부평지역단 설계사 10여명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관계자 및 성동원 임직원과 원우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성동원 원우들은 감사의 뜻으로 스포츠 댄스와 악기 연주 등을 선보였고, 삼성화재 설계사들은 장애 아동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잠옷을 선물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2005년 7월에 시작된 삼성화재 설계사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장기보험계약 1건당 발생한 소득에서 자발적으로 500원씩 기부한 기금을 통해 장애인가정 및 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약 2만여 명의 삼성화재 RC가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모금액은 약 37.9억 원으로 이번 달까지 159개의 장애인 가정과 26개의 장애인 시설 등 총 185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왔다.

H 현대해상

201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6년 연속 대상 수상



현대해상은 지난 11월 7일 63컨벤션에서 있었던 '201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GWP)' 시상식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세계적 권위의 GPTW협회의 한국 법인인 GWP Korea가 주관하여 전세계 45개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현대해상은 지난 9월 1,000여 명의 임직원 대상 설문 조사와 조직문화 관련 심사 등을 거쳐 6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2년 처음 조사에 참여한 이래 11번째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현대해상은 전사적 칭찬 제도와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제도, 신조직문화 관련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수상



현대해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4일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촉진을 위해 2000년 4월 설립된 CDP 재단이 금융기관,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기후변화 대처방법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한국CDP위원회는 올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변화 전략, 지배구조,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성과 등을 평가했으며, 현대해상은 금융-비은행 부문 탄소공개 섹터 리더로 편집되어 우수기업을 수상했다.

LIG 손해보험

김병헌 사장, 척추측만 아동 병실 찾아 온정 나눠



LIG손해보험 김병헌 사장이 12월 2일, 서울 고대구로병원을 찾아 LIG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강태웅(16세, 남) 군을 위로 방문하였다. 이번

김 사장의 위로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LIG희망봉사한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준비됐다.

'희망봉사한마당'은 2005년부터 전사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12월 동안 전국 120여 개 봉사팀으로 구성된 'LIG희망봉사단'이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주인공이었던 강 군은 LIG손해보험이 의료비를 지원한 170번째 아동으로, 지난주 6시간이나 걸리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기에 있다.

김 사장은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낸 태웅이가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2월 한 달간 진행하게 될 희망봉사한마당 캠페인이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0회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LIG손해보험의 홈페이지(www.LIG.co.kr)가 2013년 '제10회 웹어워드코리아' 평가에서 손해보험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

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국내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웹전문가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디자인, 기술, 콘텐츠 등 총 8개 부문에서 40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우수 웹사이트를 발표하고 있다.

6개월여 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새롭게 오픈한 LIG손해보험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방문고객의 이용 편의를 크게 늘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산하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를 획득한 LIG손해보험의 새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반적인 메뉴 구성과 디자인은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직관적으로 제작됐다.

동부화재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 선정-보험업계 최초 국무총리표창 수상



동부화재가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험업계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한 종합 관리체계를 뜻한다.

동부화재는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자금세탁위험을 사전에 제어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는 법규교육을 통하여 의식을 제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동부화재는 앞으로도 사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과 사내 자격시험을 연계하여 임직원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위탁교육 참여와 운영중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동부화재가 1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3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식에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CCM(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과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동부화재는 그 동안 VOC시스템과 소비자 평가단 등 소비자를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경영방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재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전사적인 소비자중심 경영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H농협손해보험

연말연시 후원금 전달



농협손해보험은 12월 24일, 김학현 대표와 임직원 10여명이 성탄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 양로원과 은평구 소재 무료급식소 '나눔의 동지'의 어르신들을 찾아 방한용품

인 목도리를 선물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농협손보 임직원은 청운양로원과 요양원 어르신들 80여분에게 목도리를 손수 걸어드리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나눔 활동 전에는 청운양로원에 연말연시에 활용할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무료급식소 나눔의 동지를 방문, 점심식사를 마친 독거노인 200여분에게도 목도리를 선물했으며 나눔의 동지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학현 대표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임직원들의 나눔 경영 참여도를 높여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100세종합보험' 출시



농협손보가 출범 후 처음 선보인 통합형보험 '(무)행복100세종합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1월 출시 이후 11월 말까지 2만여 건이 판매되며 농협손보의 대표상품으로 자리했다.

이 상품은 길어진 평균수명과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암, 뇌출혈 등의 질병과 함께 상해는 물론 화재, 운전자, 배상책임, 골프 등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대해 10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실버플랜을 마련, 61세부터 65세까지의 노년층도 고액암 및 뇌출혈, 뇌출혈 등 뇌 관련 질환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시 장제비와 가족생활비를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보험만기를 100세, 80세 2종으로 구분해 보험만기에 대한 선택폭도 확대했다.

KFPA

NEWS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MOU 체결



KFPA는 10월 7일(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관련 보험 활성화 등 대국민 서비스 지원 확대의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을 연구하는 KFPA와 재난관리분야 기술개발과 정책선진화를 위해 연구하는 재난안전연구원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게 되어 이루어졌다.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방재분야 공동 기술연구 수행, 국내·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조사 및 대책 수립, 세미나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 재난안전 및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대형 특수건물에 설치된 건물관련 상황에 대한 총괄적 DB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화재, 누수, 붕괴 등 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가능해져 건물 위험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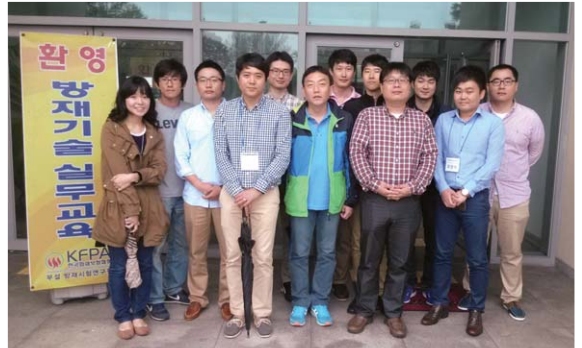
KFPA 이기영 이사장은 MOU 체결식에서 “최근 재난의 대규모화, 비정형화 및 복합화에 따라 과학적 재난 예방을 위해 기술의 융복합화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FPA와 재난안전연구원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민 실생활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재난 대비 기술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사 직원 초청 위험관리 교육 실시



KFPA는 손해보험회사 화재 특종 및 위험관리 담당직원 15명을 초청하여 10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손해보험사

직원 초청 위험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위험관리분야의 전문지식 공유 및 화재안전기술 보급을 통해 손해보험업계 화재특종 및 위험관리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KFPA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화학공장 위험성 평가, 자연재해 위험성과 대책,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업계에서 이슈화되는 분야에서 선정하였으며, 방재시험연구원의 연구시설 견학과 각 사 직원들 간 유대 강화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KFPA 이기영 이사장, 화재안전 봉사활동 펼쳐



KFPA 이기영 이사장은 11월 9일(토)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을 방문하여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918년에 설립된 좋은집은 아동 90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KFPA 이기영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소방시설, 피난시설, 가스시설, 전등 및 전열기구 점검 등 재능기여 봉사활동과 청소, 빨래 등 노력봉사활동을 하고, 재원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화재 초기 시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

는 소화기와 화재예방교육 자료,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기영 이사장은 “어린이들은 화재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유사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화재가 나더라도 재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KFPA의 화재안전 봉사활동이 사회취약계층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KFPA는 2009년 10월 화재안전봉사단을 출범한 이래,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258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화재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제2기 화재안전 명예교사 위촉 및 교육용 연기소화기 기증



KFPA는 전국의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교육을 담당할 제2기 화재안전 명예교사 33명을 신규 위촉하고, 명예교사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 21일(목) KFPA 빌딩 5층 세미나실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KFPA는 지난 2012년 11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MOU를 체결하고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안전지도자회 회원 중 50명을 화재안전 명예교사로 선발한 바 있으며, 교육 신청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올해에는 34명을 추가로 위촉하게 되었다.

KFPA 관계자는 “화재예방교육은 강자의료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되는 만큼 최고 수준의 화재예방교육 전문교사를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재안전 명예교사 양성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KFPA는 어린이 화재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500만원 상당의 교육용 연기소화기를 안실련에 기증하였다. 소화기와 동일한 형태의 실습용 연기 소화기는 포그액을 넣고 전기 충전하면 실제 분말소화기와 똑같이 흰색의 연기를 분사하는 것으로, 화재안전 명예교사가 초등학교 교육 시 활용할 예정이다.

FILK인증 관련 기술 세미나 개최



KFFPA는 11월 28일(목) 오후 2시 KF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군 소재)에서 「소방·방화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FILK 품질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인증품목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사, 설계업체, FILK 인증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FILK 품질인증』은 방재시험연구원이 제정한 국제 수준의 인증기준에 따라 벽·보·기둥·바닥·지붕·문·커튼·카펫·침구류 등의 건축구조 및 재료와 소화기·소화약제·경보설비·소화설비 등의 소방용 기계 및 기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한 우수 제품에 한하여 FILK 마크를 부여하는 민간자율 품질인증제도이다. 품질이 우수한 『FILK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화재보험료는 최대 60%까지, 제조물책임(PL)보험은 5%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 소화설비할인 설계 방안(KFFPA 최상종 서베이트팀장, 소방기술사) △해의 소방제품 인증제도 현황 및 동향(방재시험연구원 임홍순 품질인증팀장) △광통신 멀티드롭 네트워크 R형 화재감시 시스템 소개(현대인프라코어 김광국 전무) △건축물 화재확산방지설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 서희원 책임연구원)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CCTV를 이용한 화재감시 재현시험 및 선형조인트(커튼월)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비교시험도 진행하였다.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 초청 방재기술교육 실시

KFFPA는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된 관계자 20

여 명을 초청하여 12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KF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방재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관계자에게 화재안전 기술 보급 및 KFFPA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제도 활성화 및 우수건물 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전기화재 위험성 및 화재사례,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 소화설비 구조와 유지관리 등에 대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방재시험연구원의 시설 견학과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한편, 2011년 6월에 시행된 『KF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KFFPA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전국 153개의 사업장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었다.